해 외 출 장 결 과 보 고

1. 출장건명 : OECD 농업환경정책위원회 제25차 JWP 회의 의장단 회의 및 본회의 참석

2. 출장목적

- OECD 농업환경정책위원회 합동작업반(JWP) 부의장으로 의장단 회의와 제25차 본회의에 참석 의제선정 및 의제별 우리나라의 입장 제시

3. 출장일정

일자	이동상황	방문기관	주요 사항
12월 8일(토)	서울 → 파리		·숙소 도착
12월 9일(일)	체 재	OECD 한국대표부	·국내참석자 회의 참석 -JWP 대비 훈령 및 지침 확정
12월 10일(월) ~ 12월 11일(화)	체 재	OECD본부	·JWP 의장단 회의 참석 ·2008/09년 JWP 의장단 선출 ·회원국별 농업환경정책 최근동향 논의 ·환경적 상호준수 프로그램 연구진행 및 향후 전문가 워크숍 개최 논의 ·바이오에너지의 환경적 측면 논의 ·농업환경문제와 관련한 정책조치 종합보고서 논의 ·농업환경정책과 환경효과의 연계분석 ·농업환경지표 - 서식지행렬 접근과 주기적인 지표개발 업데이트 방식 ·지속가능 토지이용 및 농촌경제발전과 관련한 농업정책 영향 분석 ·농업용수의 지속가능한 관리 ·비용효과적 농업환경정책의 설계 시행지침 관련 논의 ·JWP 소관작업에 대한 중간검토와 2008/09 작업계획 확정
12월 12일(수) ~ 12월 13일(목)	파리 → 서울		·회의결과 보고 및 전문작성 ·귀국

OECD JWP 제25차 회의 결과보고

I. OECD 제25차 JWP 회의 개요

○ 회의명칭 : OECD 농업/환경정책위원회 제25차 JWP회의

○ 회의기간 및 장소

- 기간: 2007년 12월 10일 ~12월 11일
- 장소: 프랑스 파리 국제에너지기구 회의실

○ 회의참석 우리나라 대표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창길 박사(JWP 부의장)
- 농림부 국제협력과 한철수 사무관, 친환경농업정책과 조병희 주무관
- OECD 대표부 윤동진 농무관
- 농업과학기술원 고병구 박사

※ 제25차 JWP회의에는 OECD 회원국 전체 30개 국가에서 최소한 1명 이상의 대표자가 참석하였고, 우리나라는 5명, 일본 6명, 미국 6명, OECD사무국 16명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하였음.

II. 주요 회의결과

1. OECD농업/환경정책위원회 의장단 협의회

○ 일시: 2007년 12월 10일, 13:00 ~14:50

○ 장소: 국제에너지기구 소회의실

○ 참석자:

- OECD JWP 의장단: 의장 Dr. Smith(미국), 부의장 김창길 박사(한국), Ms. Zezza(이태리), Mr. King(뉴질랜드), Mr. Lyssantrae(노르웨이)
- OECD사무국: Mr. Tangermann(국장), Mr. Ken Ash(부국장), Mr. Legg(농업위 과장), Mr. Jones(환경위 과장)

○ 협의내용

- 이번 의장단 회의(Bureau Meeting)에서는 제25차 의제 전반에 대한 논의와 특히 환경적 상호준수(ECC) 보고서 공개와 관련하여 EU대표와 독일을 비롯한 EU 회원국의 부정적 입장이 강력하여 타협안을 모색에 관한 타회

원국과의 의견조율의 필요성이 제시됨.

- EU의 공동농업정책 개혁과 ECC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정치적으로 중요성을 가진 프로그램으로 OECD보고서에서 상충적인 입장을 제시하는 경우 공개승인에 상당히 부정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됨.

○ 2008년에 종료되고 2009년부터 5년간의 과업 지침(mandate)은 이미 의장단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이 이므로 이번 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협조키로 함.

3. 회원국 농업환경정책에 관한 Round table

○ 사무국은 회원국들의 최근 농업환경정책 발전상황에 대하여 소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핀란드, 폴란드, 영국, 미국, 독일, 터키, 덴마크 등이 자국의 최근 정책변화 상항에 대해 소개하였음.

- 핀란드는 농업이 수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2008년부터 3년간 2억 유로를 투입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함. 농업부문의 비점오염원 배출과 관련 수질보전의 이슈가 국가적인 과제로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하였다고 함.
- 폴란드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9개 농업환경정책프로그램을 포함하는 농촌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함. 환경친화적인 농촌개발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어 환경성이 정책추진의 중요한 기준으로 설정되었음.
- 영국은 최근의 농업환경정책프로그램, 특히 온실가스 감축에 대비하여 농업분야의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최근에 발표된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었음을 소개함(www.defra.gov.uk)
- 미국은 품목 및 보전직불제의 통합(integration)이 이루어지는 최근의 정책변화, 특히 환경과 연계된 녹색지불금(green payment)에 대해서 설명함. 농업부문의 환경성 제고를 위해서는 비용효과이면서 농가에 소득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정책담당자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 이들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함.
- 독일은 EU와 WTO에서 규제 대상으로 작동되고 있는 바이오연료 생산을 위한 바이오매스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함.
- 터키는 야생동물 보전과 관련하여 농업부와 환경부에서 적극적인 법적 장치와 지원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키로 했다고 함.
- 덴마크는 기후변화협약 및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7년 11

월부터 기후·에너지부(Ministry of Climate and Energy)를 신설하여 전략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함.

4. 환경기준 준수조건 농업지원정책(ECC) 프로그램 관련 보고서 공개승인 및 워크샵 추진

□ 의제개요

○ 사무국은 2006년 6월 작업반회의에 제출된 ECC의 개념, 특징, 다른 농업정책과의 일관성 분석보고서와 국가별 사례연구 보고서 등 2건의 보고서에 대하여 당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였고, 2건의 보고서를 1건으로 통합하여 2007년 3월 통합보고서에 대하여 다시 회원국의 서면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음을 설명하면서 이번 회의에서 공개승인을 결정할 것을 요청하였음

- ECC의 개념, ECC 정책의 특성, 정책 개혁과정에서의 ECC의 역할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EU, 미국, 영국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ECC의 사례를 언급하고 있음

□ 회원국 반응

○ EC 대표 및 독일 대표는 2007년 7월 24차 JWP회의시 지적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보고서 공개 승인 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강력하게 반대의견을 표명함. 또한 EU 대표는 ECC 워크샵은 관련 보고서 제출 전에 브레인스토밍과 핵심이슈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거치기 위해서 개최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이므로, 2008년 7월 JWP회의 직후 개최 예정인 워크샵은 프로그램 구성 내용은 물론이고 진행 방식 등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미국과 호주 등은 ECC보고서가 그동안 JWP논의과정에서 제시된 지적사항이 적절하게 반영된 보고서로 공개승인에 지지의사를 표명함. 또한 ECC워크샵은 보고서에서 잘 다루지 못한 의제를 발굴하여 심층적인 논의를 위한 정보공유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제시함

○ 스위스는 ECC 보고서가 농업환경정책에 있어서 효율성과 형평성이 잘 반영된 주요한 수단인 ECC를 잘 다루고 있고, 또한 2005년 이후 JWP논의에서 제시된 의견이 충분히 잘 반영되어 보고서 공개 건에 지지 의사

를 표명함

○ 한국은 ECC에 대하여 국가별 여건에 따라 프로그램의 내용과 준수조건 등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EU에서 제시한 기술적인 지적사항은 적절하게 반영시켜야 하며, 보완된 ECC 보고서는 향후 이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 중인 회원국에 도움이 되는 보고서이므로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 보고서가 공개될 수 있는 대안마련이 필요함을 제시함

□ **논의결과**

○ EC 대표는 사무국 보고서 공개승인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공식 서면 의견을 사무국에 제출하면서 EU와 사무국간의 양자 협의 또는 2008년 7월 4일 예정된 ECC 평가에 관한 워크샵에서 재검토 후 공개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하였음

○ 사무국은 ECC 보고서 공개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 EU대표와 독일 대표의 서면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보고서에 반영키로 하였고 워크샵 프로그램에 관해서도,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8년 JWP 회의 직후 논의키로 결정함

5. 바이오에너지의 환경적 측면(정책적 시사점)

□ **의제개요**

○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촉진하는 농업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T. Young 교수의 발표(제목 : 1, 2세대 바이오연료의 환경영향)가 있은 후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각국의 의견제안

□ **회원국 반응**

○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바이오 연료 생산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과 관련, 원칙적으로 사무국의 연구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

- 핀란드는 토지에 어떤 작물을 재배하고, 어떻게 사용함에 따라 온실가스 방출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 독일은 scoping paper에서 다루지 못한 농업, 무역환경에 관련한 연구도 필요한 것으로 제안
- 일본은 핀란드, 스위스, 미국 등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일본식 SAPIM 모델을 구축하기 위하여 기초 데이타를 수집하기 시작하였음

□ 논의결과

○ 사무국은 바이오연료 생산의 환경적 영향 위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회원국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2008년 7월에 수정된 연구계획서를 다시 제시하기로 하였음

6. 농업환경문제와 관련한 정책조치 종합보고서

□ 의제개요

○ 농업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적 조치로 경제적 수단, 명령과 통제 조치, 권고 및 제도적 조치 등으로 대별하여 제시하고 있음

○ 전반적인 농업정책에서 농업환경정책조치를 평가하기 위해 PSE 가운데 농업환경정책에 할당된 비중, 집행기준을 기초로 농업환경정책조치를 분류하는 방식을 제시함

○ PSE에 농업환경조치(AE)를 연계시키기 위해 농업환경지불금이 지향하는 공간적 목표, 투입물·농장조치·환경성과 등이 지향하는 목표, 사업기간(단기, 중장기 등), 지불/집행 기준의 근거(면적, 투입재 사용 등), 지불금 수준의 정의 등으로 제시함

○ 새로운 PSE 분류의 범주로 시장가격지지, 산출물기준 지불, 투입재사용기준 지불, 현행 생산유지 지불, 고정 생산유지 지불, 고정 비생산유지 지불 등 크게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 있음

□ 회원국 반응

○ 뉴질랜드와 미국은 보고서 전반적인 내용에 지지의사를 표명하면서 PSE와 연계시키는 작업은 민감한 사안이므로 농업환경정책 프로그램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함을 언급함

○ 캐나다는 정책마다 지향하는 목표가 다르고 PSE의 목표가 국제무역에서 국가간의 보조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써 활용되기 때문에 농업환경정책을 PSE에 연계시키는 문제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 독일 영국 등 유럽국가는 주어진 시간내에 작업일정을 맞추는 것이 촉박하다의견을 제시함

□ 논의결과

○ 농업환경정책조치의 분류 방식과 각 수단별 개념 등에 관해서는 이미 JWP논의를 통해 정립되었으므로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농업환경조치를 PSE와 연계시켜 파악하고자 함은 향후 농업보조금에서 농업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투입되는 정책적인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는 Green Round에 대비한 예비적인 조치로 평가됨

○ 농업환경정책 조치 가운데 PSE와 연계시키는 각각의 기준에 대한 치밀한 검토가 필요함. 기준 설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잘 제시되고 있지 않음

○ 농업환경정책을 PSE와 연계와 관련하여 회원국의 의견수렴이 중요함으로 2008년 1월 중순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반영키로 함

7. 농업정책과 환경효과간의 연계분석 : 낙농분야 환경영향 모델링(스위스 예비모델 분석결과)

□ 의제개요

○ 2005년 7월, JWP회의에서는 사무국이 제시한 농업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인과관계 분석모델 개발이 필요하다는데 합의하여, 경제와 생태물리적 모델을 통합한 정형화된 농업환정책영향모델(Stylized Agri-Policy Impact Model, SAPIM)이 제시됨

○ 모델 적용사례인 스위스의 낙농은 고용창출, 농업투입재 사용, 조건불리지역의 농업경관 유지 등 농촌지역에 기여하는 주요한 경제활동 부문임. 그러나 젖소분뇨가 부적절하게 처리되는 경우 암모니아 배출과 질소와 인산 등을 배출함으로써 수질 및 대기 오염원으로 작용함. 가축분뇨정책은 낙농가의 수익성과 수질과 대기질 등 환경성간의 상충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이들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SAPIM 적용을 시도함

○ 스위스의 사례는 농가수준(farm level)을 대상으로 한 SAPIM으로 환경효과와 정책수단(규제, 환경기준 준수조건 농업지원제도, 오염세, 생태직불금, 분뇨처리시설지원 등)을 분석하는 시도로 평야지역을 대상으로 시도한 중간단계의 진도보고서(progress report)로 잠정적인 분석결과에 대한 전문가 검토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임

□ 회원국 반응

○ 미국은 SAPIM의 분석력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사례연구로 평

가하면서 향후 실제적인 정책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분석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와 협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함.

○ 캐나다는 SAPIM의 사례연구가 농업과 환경문제를 연계하여 분석하는 이상적인 접근방법이긴 하나 환경적인 특수성을 모형에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지는 의문을 가진다는 점을 제시함.

○ 한국은 스위스 사례의 경우 기존의 SAPIM 분석과는 달리 농가단위에 한정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이윤극대화 측면만 고려하고 사회적 비용과 편익이 고려되는 사회적 최적화는 반영되고 있지 않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를 질의함. 또한 모델 자체로는 이상적이긴 하나 필요로 하는 파라미터의 현실성과 환경생태 분석모형의 경우 지역적 환경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정책효과를 총계화하는 경우 현실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를 해석하는데 상당한 한계가 있음을 지적함.

□ 논의결과

○ SAPIM의 실제적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모델에 적용되는 파라미터와 분석결과의 함축성에 대해 스위스 전문가와의 논의를 통해 보완키로 함.

○ 스위스 사례연구는 농가단위에서의 분석결과를 활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사회적 최적분석은 아직 다루고 있지 않음. 지역적 환경성을 모델에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며 이러한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석결과를 확대해석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으므로 상당한 제약조건이 따라야 함을 언급함.

8. 농업정책과 환경효과간의 연계분석 : 일본의 논농업 적용 계획보고서

□ 의제개요

○ 일본은 SAPIM을 논 농업에 적용하여 농업정책과 환경성의 분석을 위한 작업을 시도하여 2008년 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는 계획보고서(scoping paper)를 발표함

○ SAPIM 모델 운용을 위한 분야별 기술적 연구에 대한 문헌검토와 논에 적용될 수 있는 개별농가의 수익극대화와 사회적 후생극대화의 기본적인 모형을 정립하여 제시함. 사회적 후생함수는 농가의 수익극대화에 환경손실 및 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반영하는 목적함수를 설정함

○ 모델에서 고려하는 환경적 영향으로는 양분유출의 손실, 생물다양성, 온실가스, 농지생태시스템 기능(ecosystem function) 등을 대상으로 하며,

세부적인 접근방식을 제시함. 정책시뮬레이션 분석에서는 과잉 양분에 대한 세금부과, 면적에 따른 직불금과 목표 농업환경지원금 등을 가정하여 사전적 및 사후적 분석을 시도할 계획임을 제시함

□ **회원국 반응**

○ 미국은 일본의 SAPIM 적용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하면서 사무국에서 개발된 모델이 실제로 회원국에 적용되도록 모델개발 담당자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언급함. 또한 가능하면 기존의 SAPIM 분석사례, 스위스 및 일본 사례 등이 비교검토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향후 필요함을 지적함.

○ 한국은 그동안 SAPIM이 유럽의 밭 농업과 축산에 적용되어 연구되어 왔으나, 일본의 논 농업에 적용한 사례는 유일한 사례연구로 시사하는 바가 크므로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함. 다만 농업환경정책의 사회적 최적 분석을 위해 사회적 후생함수의 개념적 골격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환경과 연계하여 논 농업의 사회적 편익을 함수로 추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로 상당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과제임을 언급함.

※ 논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해 부문별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연구는 이루어졌으나 예를 들어 논 농사의 경우 1ha가 줄어드는 경우 사회적 한계편익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어 사회적 후생함수 추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 **논의결과**

○ 일본의 SAPIM 적용 사례연구에 대한 사무국과 회원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같이함. 사무국에서는 SAPIM 모델의 운용과 구체적인 연구방향 등에 관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함

○ 일본 발표자도 사회적 후생함수 계측에 관해서는 아직 개념적 모형설정 단계로 실제로 추정이 가능하고 또한 모델운용과 연계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되지 않아 이점에 대한 한국 전문가의 지원을 요청함

○ 일본의 논농업에 SAPIM 모델을 적용하는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의사를 표명함

9. 야생생물 서식지 행렬지표 개발(모델링을 위한 경지이용 생물다양성 DB구축)

□ 의제개요

○ 야생생물 서식지행렬은 2001년 스위스에서 개최된 농업생물다양성지표 개발에 관한 OECD전문가 회의 시 발표된 내용으로 농업유전자원, 서식지 양, 서식지 질 등을 생물다양성의 손실과의 연계성 측면에서 분석적인 틀로 제시되었음. 일본정부의 지원으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야생생물 서식지행렬 지표개발에 관한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음

○ 서식지 행렬지표는 농업생태계에서 서식지와 종간의 연관성은 서식지-종 행렬(habitat-species matrix), 자연자본지수(natural capital index), 서식지적정성지수(habitat suitability index), 서식지용량지수(habitat capacity index) 등 여러 지수에 의해 접근될 수 있음. 그러나 아직 이들 지표를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성과는 이루지 못함

○ OECD 농업환경지표로서의 야생생물 서식지 행렬지표 개발 가능성과 행렬 정보를 OECD 모델링 도구(PEM, SAPIM)에 적용하여 계량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작업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함

□ 회원국 반응

○ 핀란드, 뉴질랜드, 영국, 노르웨이 등 대부분의 대표가 농업생태계의 생물다양성 구조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접근방법으로는 공감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료의 제약성으로 당초목적을 달성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이 지적됨

○ EU 및 유럽환경처(EEA) 대표는 서식지행렬 접근방법은 이상적인 방식으로 평가되나 실제로 유럽의 경우도 지표개발보고서(IRENA)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생물다양성 평가에 어려움이 있음을 제시하였고, 도출된 서식지행렬지수와 기존의 생물다양성 지수와의 비교가능성에 대해 질의함

○ 일본은 농업생물다양성 구조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서식지행렬 접근은 어려움이 있긴 하나, 중요한 자료의 개발과 여러 가지 분산된 자료를 수집하면 서식지행렬지표의 도출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함

○ 미국은 다양한 야생생물을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 지수화하는 것이 어려운 작업이긴 하나, 생물다양성의 과학적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을 공감하며 생물 종에 조류도 포함시킨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함

※ 서식지행렬접근 관한 회원국의 질의에 발표자가 설득력 있고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해 작업 진행과정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 것으로 파악됨

□ 논의결과

○ 야생생물 서식지행렬지표의 개발은 아직 개념정립과 방법론 적용에 있어서 보완해야할 사항이 많으므로 회원국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보완작업을 진행키로 함

○ 서식지행렬접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SAPIM 등 관련되는 모델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정리됨

※ 야생생물 서식지행렬(wildlife habitat matrix)의 개념과 관련자료

- 야생생물서식지 행렬은 토지이용 형태(논, 밭, 과수원, 방목지, 휴경지, 경작포기지 등)별 각종 생물종별 농지사용상황(산란장, 육성장, 먹이장, 휴식장 등)을 단위로 환산하여 생물다양성을 평가(생물종류수, 개체수, 다양도 지수 등)하는 방법임. 일본에서는 서식지 행렬 이용 시 논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 얼마만큼 생물다양성이 감소했는가에 나타낼 수 있어 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근거로 활용할 계획으로 작업을 진행 중임

- 서식지행렬 작성을 위해서는 각종 토지이용구분별 생물서식상황, 토지이용에 관한 데이터, 생물종별 서식지로서의 이용상황 등의 세부적인 자료가 필요함

10.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에 관한 농업정책 효과

□ 의제개요

○ 2007년 7월, 24차 JWP회의 시 발표된 농업정책의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에 미치는 효과분석의 개념설정과 방법론을 다룬 문제설정 보고서(scoping paper)가 회원국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담긴 하였으나 너무 포

괄적이고 접근방법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한 보완본임

○ 환경친화적 지속가능한 토지이용관리와 토지이용과 농촌개발등과 관련된 농업정책을 결합(coherence)에 초점을 맞추고 경험적 사례(5페이지), 농업정책효과(30페이지), 환경적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정책접근(20페이지), 결론 및 정책적 함축성 등 4개의 장으로 보고서를 구성함

○ 토지이용방식과 관련한 검토대상 사례국가로 호주, 핀란드, 일본, 스위스는 조건불리지역의 토지관리, 네덜란드와 미국은 도시와 농촌 주변지역 토지관리, 영국과 프랑스는 집약적・전문적・다양화된 생산시스템에서의 토지관리의 경우를 제시함

□ **회원국 반응**

○ 캐나다와 미국, 호주 등은 환경적 지속가능한 토지관리방식의 개념이 모호하고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사례도 넓은 범위(broad spectrum)에 적용될 수 있어 회원국이 수용할 수 있는 개념정립과 범주설정이 우선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함

○ 한국은 지속가능한 토지지용의 정책효과 분석과 관련, 계량적 방법론이 아닌 사례조사를 기초로 한 기술적 방법(descriptive approach)을 적용할 경우 우수정책방식(good policy practice)의 도출 방식도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분석대상 토지는 어디까지 포함시킬 것이며 농업정책에 구체적으로 어떤 농촌개발정책까지를 포함시킬 것인지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함을 강조함

□ **논의결과**

○ 사무국은 정책효과 분석과 관련한 개념규정과 분석방법 등은 보고서 2장에서 명확하게 제시할 것이며, 농업정책과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에 초점을 맞추고 농촌경관과 연계시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농촌정책은 정책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음을 제시함

○ 토지이용방식별 대표적인 사례국을 제시하였으나 일부 국가의 경우 부조화되는 측면이 있어 사무국이 해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키로 함

○ 향후 작업방향과 관련 관련분야의 문헌검토와 사례조사 등은 전문컨설턴트를 활용하며, 2008년 12월 JWP 회의 시 최종 완결보고서를 제출토록 함

11. 농업용수의 지속가능한 관리

□ 의제개요

○ 제24차('07.7) 작업반회의시 제시된 작업계획서에 따라 사무국은 보고서의 기본체제 및 내용에 관한 개요(outline)를 제시하고 2008년 보고서 완결을 목표로 회원국과의 의견을 교환함.

○ 지속가능한 물 관리에 관한 논의는 JWP 농업정책·시장작업반(APM)과 환경위원회에서 공통관심사(horizontal project)로 다루어지고 있는 의제임

□ 회원국 반응

○ 미국과 캐나다는 농업용수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인프라, 물시장, 제도적 장치, 보조금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다룬 총체적 접근(holistic approach)을 시도한 체계적인 내용으로 평가하며 향후 작업방향에 지원의사를 표명함

○ 영국은 문서의 전반적인 내용에는 대체로 공감하나, 지속가능한 물관리의 경우 제도적 접근에 있어서 회원국별 특수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주장함. 영국의 경우 농업용수 관리는 여러 정책이 결합(policy portfolio)되어 접근되고, 특히 농업용수도 국토자원의 보전이라는 측면에서 내셔널트러스트(National Trust)운동이 적용되고 있는 사례를 언급함

○ 일본은 농업용수의 관리는 회원국의 역사적·제도적 측면에 대하여 고려되어야 하며, 물시장에서 물가격과 완전비용회수방법은 달리 접근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함

□ 논의결과

○ 지속가능한 농업용수 관리와 관련하여 제도적인 측면을 보완하고, 완전비용회수 방식과 관련 재정적 측면과 물분배 측면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기술키로 함

○ 농업용수와 관련해서는 OECD에서는 농업정책시장작업반, 농업환경공동작업반, 환경위원회 등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주요 사안으로 회원국의 공통관심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키로 함

○ 농업용수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관련된 최근의 정책변화의 회원국 사례 자료는 2008년 2월 14일까지 사무국에 제출키로 함

12. 효과적인 농업환경정책 설계 및 시행을 위한 지침

□ 의제개요

○ 제24차 작업반 회의('07. 7)에서 제시된 작업계획서에 따라 2008년까지 정책입안자가 다양한 비용 효과적(cost-effective)인 농업환경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한 지침(guideline)을 제시함

○ 지침은 전체 7장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이번 회의에는 제1장(개요)과 제2장(정책수단 선택의 개념적 분석틀)이 제시됨

□ 회원국 반응

○ 미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은 농업환경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한 지침은 회원국 정책담당자에게 매우 유용한 보고서로 평가하였으며, 캐나다는 너무 대학원의 교과서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 실용도를 높이기 위해 몇몇 사례를 정하여 실제로 정책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심층 진단하여 자료작성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한국은 농업환경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한 지침서 작성과 관련 전체적인 구성은 잘 이루어졌으나 사후적인 정책평가 방법에 대한 제시가 미흡하고 여러 가지 정책수단에 대한 검토도 중요하나 현실적으로는 다양한 정책수단 가운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도 정책결정자의 중요한 관심사항이므로 보고서에서 다루어져야 함을 제시함

□ 논의결과

○ 사무국은 정책결정자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지침서 작성에 초점을 맞추도록 할 것이며, 특히 회원국에서 제시한 의견이 잘 반영된 지침서가 작성되도록 한다면서 서면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함

○ 농업환경정책 수단의 선택과 관련 사후적 평가방법으로는 사전적 평가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는 비용편익분석, 비용효과분석, 다기준분석 방법이 적용될 것이며, 정책수단의 우선순위 결정은 중요한 과제이나 지침서에서 어떤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검토가 필

요함을 언급함

13. 작업반 mandate 갱신 검토

○ OECD 농업환경정책위원회 합동작업반의 현재 추진 중인 과업은 2003년부터 2009년 1월에 종결되는 사안으로 특별한 이견 없이 통과되었음. 다만 일본의 경우 향후 과업에서 교토의정서와 관련 온실가스 문제의 반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사무국은 예산 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함

14. 2008 작업반 의장단 선출

○ 의장 후보로는 미국, 노르웨이, 영국의 대표가 각각 지원하여 1명을 선출하고, 부의장 후보로는 일본, 이태리, 뉴질랜드 대표가 각각 지원하여 4명을 선출할 예정인 바 이에 대해 각 회원국은 2007년 12월 14일까지 e-mail로 추천할 것으로 계획임.

○ 의장단 최종 투표결과는 2008년 7월 제26차 JWP회의시에 발표키로 함.

Ⅲ. 관찰 · 평가 및 정책건의

1. 주요 관찰내용 및 평가

○ 향후 OECD사무국의 작업방향에서는 그동안 10년동안 개발해온 농업환경지표의 정책연계 분석을 위한 작업을 핵심과제로 채택하였음. 일본의 경우 OECD SAPIM 모델을 국내에 적용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도 적절한 대비책이 필요함. 농업환경지표는 향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작업이 진행되고 또한 회원국의 농업환경상태 및 관련정책분석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임으로 이 분야의 연구 과제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 환경적 상호준수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논의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2008년 7월 제26차 JWP회의 종료직후 OECD에서 상호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다루는 전문가 워크숍이 개최될 예정이어 우리나라도 주제발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련분야의 연구과제가 수행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가 2002년부터 6년간 OECD 농업환경정책위원회 부의장직을 맡

아오면서 의제선정과 핵심이슈 논의에서 방향설정 및 보완과제를 적절하게 제시함으로써 위원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음을 인정받았음. 2008년 7월부터 시작되는 차기 의장단에는 일본측 대표 외 2명의 후보가 입후보하여 우리나라는 일본대표를 지원키로 함. 향후 OECD 농업환경분야의 논의에서 일본과 보다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정책 및 기타 건의사항

○ OECD JWP에서 핵심과제로 추진해오고 있는 환경적 상호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과제는 우리나라의 맞춤형 농정(targeted agricultural policy)과 유사한 내용이 많으므로 상호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 이 분야의 정책과제 추진이 필요함.

○ 우리나라는 OECD 농업환경정책위원회 부의장국으로 6년동안 상당한 기여를 인정받았음. 이제는 OECD JWP에서 의장국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관심과 연구원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향후 OECD농업위원회와 KREI와의 연구협력 강화를 위한 관심사에 대해서 농업·무역국의 Tangermann국장 및 Legg과장과 논의하였음. 2008년 3월 또는 4월에 예정되어 있는 KREI와 OECD간의 한국농정 평가에 관한 세미나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 국장과 과장은 내년 세미나 개최를 계기로 양 기관 간에 적극적인 협력관계 유지의 필요성을 표명하였음. 또한 OECD사무국은 KREI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했고, OECD 국장 및 과장은 KREI와 보다 실질적인 협력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보다 관심을 가지기로 함.

○ OECD는 각 분야의 농업분야 이슈 논의를 선도하고 향후 국제무역 및 환경규제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연구원에서는 OECD 관련분야의 연구 과제를 발굴하여 이슈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또한 전문가가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특히 2008년도 OECD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한국농업정책 평가 세미나 개최를 계기로 MOU체결 등 보다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